강기정 시장, '문화외교' 나섰다

'광주비엔날레 예술의 날' 개최…콩고 등 7개국 대사·배우자 초청
비엔날레·파빌리온 전시, 무형문화재 공연 등 '문화 광주' 만끽

강기정 광주시장이 7개국 대사·배우자를 초청해 '문화수도 광주' 알리기에 나서는 등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2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제1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의 날'을 개최하고, 아토키 일레카(ATOKI ILEKA) 주한 콩고민주공화국 대사와 배우자, 중국·우크라이나·앙골라·잠비아·슬로베니아·벨라루스 주한 대사 배우자를 초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환영 만찬을 열고 광주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문명자·황승옥·이영애 선생의 가야금 병창, 시립교향악단의 현악4중주 공연 등을 선보이는 등 국가 간 문화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초청은 강 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광주비엔날레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 국가전시관인 파빌리온 공유와 확대 운영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12~13일 1박 2일간 광주에 머물며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 가야금 병창 등 무형문화재 공연 등 '문화광주'를 만끽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문화외교를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외연 확장과 광주의 문화적 자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아토키 일레카(ATOKI ILEKA) 주한 콩고민주공화국 대사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광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과 콩고민주공화국의 양자 관계 우호증진뿐 아니라 광주시와 도시외교를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멋과 맛과 의가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 향기를 흠뻑 느끼셨을 것으로 기대 한다"며 "특히 이번 행사는 광주의 문화예술에 대해 알아가고 그것을 여러분의 나라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덕분에 광주의 문화예술은 더 넓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경험은 광주비엔날레 성공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광주시는 2024년 개최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서 파빌리온 국가관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개국으로 확대하고, '제2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의 날'을 개최하는 등 세계미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안전 점검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13일 북구 신안동의 한 대형쇼핑몰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일자리종합센터 올해 5천여 건 취업 알선·지원

전남일자리종합센터가 올해 직업상담사를 통해 4290건의 취업 상담·알선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 운영 등을 통해 689명의 취업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한 전남일자리종합센터가 상담·알선·취업까지 체계적인 일자리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순천에서 개최한 '시군과 함께하는 전남 동부권 일자리박람회'에 약 1500명의 구직자가 방문했다.

구인 30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한 박람회에선 구직자 376명이 면접을 통해 2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미취업자는 취업 컨설팅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직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 올해 4월 광주·전남 상생발전 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에 200여개 기업과 구직자 1768명이 참여해 86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일자리종합센터는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상담에서 알선, 취업까지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맞춤형 현장 면접을 제공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직자에게 면접 컨설팅과 기업탐방·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대규모 채용행사인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7월 8일 첫 개장…전남해수욕장으로 오세요

여수 만성·보성 율포 등 12곳…전체 56곳 최장 8월27일까지 운영

올해 전남도내 해수욕장 중 여수 만성리, 보성 율포솔밭,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등 12개소가 7월 8일 가장 먼저 개장할 예정이다.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은 8월 27일까지 최장기간인 51일간 운영 예정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내 해수욕장 65개소 가운데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 등 56개소가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도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전남도는 지난 12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수욕장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목포시 등 12개 시·군과 소방본부, 서해지방경찰청, 전남도 관련 실과 등 17개 관계 기관이 참석해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또 지역 물가, 위생, 수질관리 등 분야별 이용객 편의를 위해 협력키로 하고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과 무더운 여름날씨 예보 등으로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명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 7종 4000여 개의 안전 장비를 비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업인 안전보험' 최대 100% 지원

경영체등록 농업인 농축협서 접수…신체 상해·질병 보상

전남도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100% 지원한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총 10만1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보험 상품은 개인 상품과 가족형 상품이 있으며 장해유족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농업인의 각종 사고와 질병(농부병)에 노출돼 있다"며 "농업인 안전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반드시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도에선 12만6000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5만430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59억5400만원보다 6% 많은 167억3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올해는 2022년 가입률 54%보다 높은 90%, 20만9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기소 3년5개월만

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깊은 유감…불복 절차 밟을 것"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총장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심의 절차를 재개해 이날 파면을 의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양육환경 뒷받침 된다면 이상적 자녀수는 2명

출산을 계획하거나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들은 출산·양육 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이상적인 자녀수로 2명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한킴벌리는 자사 직영몰 맘큐 커뮤니티의 유저 1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출산·육아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출산·양육 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계획하고 싶은 자녀 수'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7.1%가 2명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이어 3명(22.8%), 1명(15.4%), 4명 이상(3.6%) 순이었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3.5%에 달한 셈이다.

출산·양육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계획하고 싶은 자녀 수는 평균 2.13명이라고 유한킴벌리 측은 분석했다. 또 현재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의 59.6%는 '여건만 허락됐다면 최소 2명의 아이를 계획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신 중에 출산·육아를 떠올리며 가장 고민했던 점으로 52.7%는 초보 부모로서 육아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걱정·불안감을 꼽았다. 출산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20.4%였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650㎡ (801평)
-경관 아주 좋음. 별장형 빌라, 숙박시설 등 적합
-본땅 2,346㎡(710평). 도로 포함 801평. 매도 7억5천만원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컨테이너 있고 공시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06월 0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06월 12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주식회사 가든플란트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31(동명동)
청산인 민 병 구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6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6월 14일
주식회사 탑플라이트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13층 (치평동)
청산인 정 현 철

공 고

광주가정법원 2023느단3130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전 민 이(1970. 1. 1.생)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287의 22
최후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287-22
사 망 일 : 2023년 1월 23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채권 또는 수증을 2023년 8월 18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08호 (미래타워)
신고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08호 (미래타워)
문의처 061-371-4800

2023년 6월 14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

산행안내
6월20일~21일(화~수)
▲광주호산회 6월 20일~21일(화~수)〈서해 최북단 백령도〉오전 02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3시 롯데백화점 03시 10분 예술회관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71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